

청년일자리 넘치는 남원 조성

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16개 사업 선정 창업·취업 지원, 미취업자 사업 참여 사업 추진

남원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질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젊음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행안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신규사업 8개 등 모두 16개 사업이 선정되며 국(도)비 9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은 지역정책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3가지로 구분해 사업유형에 따라 청년들에게 창

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세부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2월 중에 지원자 모집공고 및 접수, 사업장 선발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직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을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하고 2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며,

이를 위해 남원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지난 1월 인사에서 일자리정책관을 배치했고, 신규 창업자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 매니저도 채용했다.

남원시 일자리 플랫폼은 취업과 창업 안내, 상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구직자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 청년 매니저를 통해 취업상담과 일자리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환주 시장은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시정 목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남원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발효소스도굴, 설 연휴기간 무료 개방

순창군이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발효소스도굴을 설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한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이다. 길이 134m, 최대폭 46m로 지하 저장고 형태로, 세계소스전시관과 소형저장실, 원형저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강천산과 더불어 순창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만 6만명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했다.

발효소스도굴에 가면 순창에서 개발한 발효커피도 마실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발효소스도굴에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산불나면 10분 이내 진화”... 임실군, 산불방지 비상체제 가동

임실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총력전에 돌입한다.

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들어

간다고 29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10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분산 배치하여 입산통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금지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설치된 산불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심민 군수는 "산불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 산림자원을 보호하겠다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자율방재단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활동 강화

임실군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자연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자율방재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설립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예기치 못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설과 한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지역의 재난에



방과 안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후 군청 직원들과 함께 관촌 및 오수면 일원에서 '음주운전, 일산화탄소중독, 음식물중독, 유해행' 없는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실시했다.

심민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재난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을 위한 협찬 도약을 시작했다.

친환경농업 품목 다양화

순창군, 특구 조성 추진 면적 조성키로

순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 소장 설태송)가 친환경농업 품목 다양화를 통해 특구 지정을 위한 협찬 도약을 시작했다.

순창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친환경농업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과, 팔덕, 유등면을 중심으로 총 1,500ha에 이르는 친환경농업 면적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10여여명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특구지정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에 기술센터는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을 1,300ha에서 1,500ha로 확대하고, 버섯, 인삼, 채소류 등 친환경농업 품목 다양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친환경 스마트팜 버섯재배사 5동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채소와 인삼 재배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친환경벼 가공을 위한 최첨단 도정시설 설치 지원도 계획하고 있어 친환경벼 재배 면적 확대와 함께 유통기반 조성

에도 나선다. 지난해부터는 유기농벼와 스마트팜 재배기술 관련 교육과 우수 지자체 견학을 20여 회에 걸쳐 900여명이 참여했다. 이로써 기반조성은 물론 농가들의 친환경농업 관련 지식쌓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또 2017년에 친환경농업센터를 설립해 토양 시비처방 및 안전관리 17개 항목, 농업용수 분석 35개 항목과 잔류농약 350개 항목 등 총 380여개에 이르는 항목분석을 통해 시너지효과도 내고 있다.

올해 GAP 농가 및 컨설팅 교육 관련예산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친환경농업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한기를 이용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하는 등 관련 분야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보건소는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운영

남원시 보건소는 치매환자 가족 간 정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모임을 통해 환자와의 경험 등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

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과 부담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가족의 말에 귀 기울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시민모니터링 요원 모집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2월 8일까지(12일간)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한다.

이번 시민모니터링은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모집요건은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12명이며, 선정된 시민모니터링 요원은 2월부터 금년도 사업 종료 시까지 남원문화도시조성사업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과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 및 남원문화도시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월 7일~ 2월 8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으로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vst0225@naver.com)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문화도시사무국(063-635-0107)으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고품질 과수 생산

적기 정지·전정 독려

남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우)는 적기 전정으로 올해도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기 정지와 전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정지·전정 작업이 한창이며, 정지 전정은 과수 나무를 절단하거나 솎아내는 작업으로, 나무에 햇 빛 쏘임을 높이고 통풍을 좋게 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정지와 전정은 방해충 방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블루베리, 아로니아, 감나무 등에 큰 피해를 주는 '노랑해기나방'은 안락 한마리가 평균 100개를 산란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한 마리 잡는 것은 100마리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또한 센터는 낙엽, 떨어진 과실, 잡초, 썩은 가지 등은 병해충의 월동 장소로 휴면기 경우 작업을 할 때 뒤집어 주거나 한곳으로 모아 태워 땅속에 묻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우 센터 소장은 "복숭아, 사과, 배, 자두, 대추, 감, 오미자 등 작물의 돌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 과실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모목갱신과 시설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